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시대를 넘나드는 판타지 로맨스 '옥탑방 왕세자'

## 개성 강한 캐릭터 대거 출연... SBS 14일 첫선

매력적인 조선 왕세자가 시청자들과 만난다. '해를 품은 달'의 무대가 조선시대라면, 이번엔 21세기 서울까지 넘나든다. 5일 제작발표회를 가진 SBS의 새 수목드라마 '옥탑방 왕세자'는 조선시대 왕세자 이각이 우연히 2012년 서울로 날아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그린 판타지 드라마로, 세자빈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와 왕세자의 애절한 로맨스 등 드라마 주요 설정이 '해를 품은 달'과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SBS '미스터 키' '토마토' '명랑소녀 성공기' 등 히트작을 집필한 이희병 작가가 극본을 맡았고, 박유천, 한지민, 이태성 등이 출연한다. '성균관 스타들'에서 성균관 유생을 연기한 박유천(사진)은 왕족으로 변신해 왕세자 이각과 흡소광업체 후계자 용태웅 등 1인 2역을 연기한다. 이각은 오랜 벗이었던 세자빈 화옹을 잃고 세자빈의 죽음에 얽힌 음모를 파헤치다 우연히 현대로 넘어오게 된다. 박유천은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현대로 건너와 무너지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민은 극중 주요 배경인 옥탑방의 원래 주인이자 이각 일행과 얽히게 되는 열혈

장사꾼 박하를 연기한다. 박하는 세자빈 화옹에게 빈의 자리를 내준 부유이 환생한 인물로 이각과 좌충우돌하며 사랑을 키우게 된다. 한지민은 "활기찬 성격의 박하는 내 실제 모습이란 말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유미는 세자빈 화옹과 '내송백단'의 흡소광업체 비서 세나 역을 맡아 한지민과 연기 대결을 펼치게 된다. 세나는 동생을 밀어내고 세자빈의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현대에서는 거짓말로 자신을 치장하며 욕망을 채워간다. 용태웅의 사촌이자 야심만만한 일종족자인 용태우는 '해정만만세'의 이태성이 맡았다. 이와 박유천을 보좌하는 신하 3인방으로 이민호, 정석원, 최우식이 출연한다. 이민호는 예민하고 지적인 교육 담당 정6품 사서 송만보를, 가수 백지영의 연인인 배우 정석원은 해병대 출신의 '몸짱'답게 호위무관 우용술로 분한다. 최우식은 내관 도치산 역을 맡았다. 정석원은 "묵직하고 강하고 남자답지만 사랑에는 속박 캐릭터"라며 "내 여자친구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지민은 극중 주요 배경인 옥탑방의 원래 주인이자 이각 일행과 얽히게 되는 열혈



터가 선명한 드라마라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첫선을 보이는 '옥탑방 왕세자'는 MBC '더킹 투하츠', KBS 2TV '적도의 남자'와 맞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6일(음 2월 14일 丙寅).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including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BS 프로그램 안내. EBS 플러스1, 플러스2, 플러스3 프로그램 목록과 방송 시간.

EBS 플러스1, 플러스2, 플러스3 프로그램 상세 안내. 각 프로그램의 제목, 시간, 내용 요약.

How's your schedule?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EBS 프로그램 소개 및 시청 안내. '매사마골(買死馬骨)' 살매, 죽을 사, 말 마, 뼈 골.

니하오 쑹구위 下馬威 xiàmǎwēi 위풍당당. '말(馬)에서 내릴 때(下)의 위풍(威)'이라는 의미로 '과거 벼슬아치가 처음 부임지에서 기강을 잡기위해 엄포를 내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용어로 쓰여 무슨 일을 할 때 첫 시작부터 본래를 보이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下馬威의 요즘엔 '말(馬)' 대신 '차'를 넣으면 어떨까요? 중학교 1학년 맏입니다. 사회과목을 맡으신 송하일 담임 선생님. 처음 대면하던 자리에서 긴 몽둥이를 들고 왔었지요. 그리고서 그 몽둥이를 교탁을 몇 번 내리치면서 일 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들 군대식으로 톡 톡 부러진 말투의 경고를 보내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두어번 그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는데, 기억 속에 그 순간만 남아있고, 엄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下馬威 효과를 느린 것이었지요.

오하오우 니혼고 雨(あめ)が降(ふ)っています.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A: あら、雨(あめ)が降(ふ)っていますね. B: 傘(かさ)を持(も)ってきましたか. A: いいえ、朝(あさ)は晴(は)れていました. B:じゃ、私(わたし)のを貸(か)して上(あ)げます. A: 借(か)り、雨が 내리고 있군요. B: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까. A: 아니요, 아침에는 개어 있었습니까. B: 그럼, 제 것을 빌려 드릴게요. [단어정리] 雨(あめ)が降(ふ)る 비가 내리다 雨(あめ)が止(や)む 비가 그치다 傘(かさ)を差(さ)す 우산을 쓰다 貸(か)る 빌려주다